

중년 성인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박영신[†] 안자영 남인순 유효숙 이영남 차연실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중년 성인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자기효능감,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초, 중, 고, 대학생 자녀를 둔 성인 2,632명(남 1,275명, 여 1,357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5.44세(남 46.96세, 여 44.10세)였다. 분석 결과,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는 성인의 자기효능감과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행복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즉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녀양육에 헌신적이었으며,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행복감을 증진하였다.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노부모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노부모부양에 적극적이었으나, 여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토대하여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중년 성인의 심리특성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원가족,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자녀양육, 노부모부양, 행복, 성인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화로 100
E-mail: yspark@inha.ac.kr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고,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은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서구의 부모자녀관계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한국인이 나타내는 고유한 부모자녀관계의 특징을 탐구하려는 시도(최상진, 2000)가 있어 왔다. 그러나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개인적 맥락과 가족관계적 맥락을 거쳐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과학적으로 규명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에 관심을 갖는다. 이에 따라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와 행복과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자기효능감과 자녀양육 및 노부모부양과 같은 요인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기존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아동 및 청소년 자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규명(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한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인간의 전 생애에서 결정적 시기로서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건강한 발달이 이후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인간발달 과정에서 가정의 영향과 부모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 관심을 갖되, 중년 성인에 초점을 두고 그들에게 미친 원가족 부모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부모자녀관계를 다루는 연구인 점에서 핵심 주제가 같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세대를 달리

함으로써, 세대 집단이 처해 있는 다른 상황과 다른 역할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을 검증하는 관련 변인들이 달라지고, 그러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의 삶에 원가족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언급되어 왔다. Prioste, Narciso, Goncalves와 Pereira(2016)가 청소년 자녀를 둔 성인들의 가치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원가족에서 관계의 질과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회고는 성인자녀의 집단주의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 집단주의 가치는 개인이 타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상호의존적인 가치를 중요시 하는 시각을 의미하였다. 원가족이 성인의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현재 가정에서의 생활만족과도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져 왔다. Sadeghi, Mazaheri, Motabi와 Zahedi(2012)이 이란의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배우자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원가족은 성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Costa-Ramalho, Marques-Pinto와 Ribeiro(2017)의 연구에서도 원가족은 성인의 부부 적응 및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도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세대간에 전이됨을 밝히는 연구들이 있다. 이준선(2014)의 연구에서 원가족 경험은 가족기능성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이 있었는데, 원가족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기혼 성인의 현재 가족기능이 건강하게 작용하였다. 박형원(2015)도 원가족 경험 수준에 따라 현재의 가족건강성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즉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인 기혼 성인일수록, 현재 건강

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 세대의 쌍을 지어 원가족의 건강성이 세대간에 전이됨을 밝힌 연구도 있다. 하성희와 정혜정(2008)이 부모와 자녀 세대를 쌍으로 표집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의 원가족 건강성은 아들 세대의 원가족 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대 간 전수가 일어났다. 즉 부모가 원가족의 건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면, 아들도 동일하게 지각했다.

청소년과 성인의 세대차에 대한 검토들이(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10; 박영신, 박영자, 남인순, 2017)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이나 아동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을 때 나타내는 심리와 행동특성을 대표하는 변인들과, 중년 성인이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영향을 측정해야 할 변인 구성이 다르다는 통찰을 제공한다. 예컨대 청소년은 학업성취나 일탈행동과 같은 행동지표들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둔 중년 성인들 경우에는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며, 또한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성인 삶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시사된다.

중년 성인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자신이 현재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의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자기효능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점차 평균 수명이 증가되고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가족들의 심리적 기

제를 이해하는 데도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붕괴되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단위로서 가정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 자녀양육이 성인의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역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건강한 가정의 구축에서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와 인간관계

원가족이 중년 성인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남순현과 한성열(2002)도 원가족이 성인 자녀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밝혔는데,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녀는 성인기에 이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높은 정서적 유대를 공유하였다. Yoshida와 Busby(2012)는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 및 부모의 결혼 상태에 대한 지각이, 성인의 가까운 이성관계에서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Kiviniemi, Wasz-Hockert, Seitamo, Joskitt, Heikkinen, Moilanen과 Ebeling(2011)이 핀란드인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에도,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성인의 가까운 관계에서의 만족도와 밀접히 관련되었다. 지배적인 부모의 이미지를 가진 경우는 가까운 관계에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근면하고 사회성이 높은 부모의 이미지를 가진 경우는 가까운 관계에서 애정적이었고, 지지적인 부모의 이미지를 가진 경우는 가까운

관계에서 균형 감각이 있었다.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원가족의 영향이 많이 검토되어 왔다. 원가족에서 부모와 관계의 질이 결혼한 자녀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순현과 한성열(2003)의 연구에서 원가족 부/모와 관계의 질은 신혼부부의 부부간 친밀감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혼부부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김지영과 최상진(2004)은 기혼 남성의 아내폭행이 개인적 특성, 부부관계, 상황적 특성, 문화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유발된다고 보고 경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편의 원가족 폭력경험이 아내폭행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성인의 인간관계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성인들의 경우에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통한 자녀와의 관계는 인간관계 중에서도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원가족 부모관계가 성인의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이주연과 장선웅(2011)은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원가족에서 부모의 돌봄 수준이 높았을수록 성인자녀의 자기 자녀에 대한 돌봄 수준이 높았고, 부모가 과보호를 많이 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에 대한 과보호 수준이 높았다. 전주혜, 박정운, 김양희, 장영은과 어성연(2010)은 원가족 경험이 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모두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 양육행동에서 더욱 친밀하고 애정적이었다. 연은경과 김영희(2014)의 분석에 의하면, 원가족 부모와 긍정적/부정

적 관계의 경험은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녀를 애정적/적대적으로 양육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원가족 부모관계는 아내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아내와의 관계는 자녀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숙희, 고인숙과 심정선(2009)의 연구에서는 원가족 부모의 양육스타일이 세대 간 전이가 되어 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가족 부모의 영향을 원가족에서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성인자녀의 현재 가정에서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한 연구도 있다. 최미경, 김영희와 정혜숙(2014)이 어머니의 원가족 부/모관계가 유아기 자녀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원가족 부 및 원가족 모와의 관계는 성인자녀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신의 유아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원가족이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노부모와의 관계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rieu(2016)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효도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한 바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기대가 아시아계 미국인의 가족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는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들에서 송기춘과 정혜정(2010)은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 지각과 결혼적응이 노부모와의 결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원가족 건강성은 노부모와의 결속도에 의미 있는 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여기에서 노부모와의 결속도는 애정적 결속(성인자녀가 노부모로부터 느끼는 이해, 신뢰, 사랑, 친밀감 등 긍정적 감정 상태), 일치적 결

속(성인자녀와 노부모간의 일상생활에서 가치관에 대한 일치 정도), 규범적 결속(성인자녀의 부양에 대한 의무감)을 의미하였다. 이신숙과 차용은(2000)의 연구에서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은 노모와의 유대관계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즉 노모와 애정적 유대 및 노모와의 갈등 모두에 대해, 원가족의 가족건강에 대한 지각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그러므로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긍정적인 유대감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렸을 때 인생 초기부터 부모자녀관계가 건강해야,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기반으로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부장적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중년 여성 경우에 시부모와의 갈등은, 가족체체의 이유로도 작용하며 가정생활 불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시부모와 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하여 박소영과 조성희(2010)는 결혼 년수, 시부모 동거여부, 본인 부모와의 갈등, 결혼만족도와 더불어 원가족의 중요성을 밝혔다. 본인의 원가족에서 부모와 갈등이 많았을수록 시부모와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가 중년 여성의 결혼 후 시부모를 부양하는 태도에 의미 있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중년 여성의 시부모 부양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양육이나 노부모부양 등 현재 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은 Bandura(1997)에 의해 주창되고 검증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은 다양한 분석대상 집단에서 광범위하게 검증되어 왔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양육이나 노부모부양과 같은 인간관계의 측면만이 아니라, 성인들의 자기효능감에도 영향력이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한윤정과 정혜정(2014)이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결혼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원가족에서 과거 아버지와의 관계는 현재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이 있었다. 즉 아버지와의 애착이 안정적이고 원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부모로서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김철근과 이완정(2012)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원가족에서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원가족에서의 긍정적인 양육경험은 성인이 된 뒤에 양육효능감을 통해 부모로서 양육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경환(2011)의 연구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성인기 이전의 원가족 부모양육태도는 핵심자기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분화를 통한 간접 영향도 있었다. 여기에서 핵심자기평가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로서, 하위변인으로서 일반화된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 및 내적통제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직무수행에서 내적동기가 높은 핵심자기평가 성격 특성의 발달

을 위해, 원가족에서의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원가족에 대한 지각이 자기존중감 등 개인의 심리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들이 있다. 김정희(2002)는 Satir의 가족재구성 모델을 활용하여, 가족관계를 재경험하는 집단상담의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자각과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함을 밝혔다.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지각과 해석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치료원리를 토대로, 원가족의 재구성을 통해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과 자기존중감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김영희, 신희정과 채영문(2007)은 원가족의 정서분위기가 유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원가족에서 정서적 지원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이렇게 높아진 자신감은 유아 아버지의 양육참여(자녀 돌보기, 여가활동 함께 하기, 정서적 지지, 생활지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영, 정소희와 김영호(2011)가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원가족에서 형성된 부정적 자기에 대한 인식은 낮은 자존감을 유발했고, 개인의 심리 내적인 갈등과 혼란은 자녀양육 과정에서도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나 신체적 심리적 방임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었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을 받은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심리행동 변인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지만, 자기효능감이 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부모자녀관계효능감이 높을수록(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을수록(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성인 집단에 적용해 본다면, 자기효능감이 노부모 부양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와 행복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일반적인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들이 있다. 이재림과 김영희(2011)가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성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가족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경험이 일반적인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남녀 모두 원가족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을 경험했을수록 일반적인 행복감이 낮았고, 낮은 행복감은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낮추었다.

일반적인 행복감만이 아니라 부부의 결혼만족도나 친밀한 커플관계만족도를 위해서도, 원가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운정과 정혜정(2014)이 다문화가정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현재 가족에서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성희, 김현수와 조성경(2012)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원가족 건강성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쳤다. Martinson, Holman, Larson과 Jackson(2010)은 건강한 원가족 경험을 가진 커플일수록 친밀한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높음을 밝혔다.

성인의 원가족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시사 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컨

대 유연지, 조현주와 권정혜(2008)의 연구에서 부부의 원가족 특성이 고부갈등과 응서갈등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력이 있었다.

원가족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에서 특히 자기와 관련된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오중현(2016)은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분화와 자기존중감에 의한 완전매개모형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영향도 포함된 부분매개모형인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원가족 경험이 성인의 결혼만족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자기와 관련된 심리특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원가족 경험은 자기분화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자기분화는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며, 자기분화와 자기존중감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경험이 중요하지만 결혼만족과 같은 행복감에 직접적 영향보다는 자기와 관련된 심리특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와 행복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시사 하는 연구들이 있다. 김정민과 최연(2014)은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행복한 삶에 작용함을 시사 하는 심층면접 자료를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는 50대 만학도 여성을 면접한 결과,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가 큰 용기가 되어 중년기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건강한 가족관계가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자원이 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가족들의 협조와 배려로 중년기 학습활동을 통해 자존

감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연구 참여자인 중년 여성들이 학교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유는 복합적인데,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가부장제의 영향과, 남녀차별적인 유교사상의 전통 가운데, 특히 만딸인 경우는 교육 기회를 다른 형제들에게 양보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거역할 수 없는 무서운 부모님이지만 자신을 사랑했던 따뜻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모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정서적 지원을 원가족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극복효능감으로 중년기 위기를 극복하고 학업에 도전하여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정체감을 찾았으며 가족관계가 향상될 수 있었다.

Hardy, Soloski, Ratcliffe, Anderson과 Willoughby (2015)의 연구에 의하면, 원가족의 분위기는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력은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력이란 관계를 위한 전략과 관계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는데, 종합적으로는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므로, 일종의 관계효능감과도 연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가족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성인일수록,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력이 높고, 나아가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성인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동일하였다.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개인 차원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연결되고, 관계 차원에서는 자녀양육 및 노부모부양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차이를 일으키는 역동이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통한 사례들의 분석에서 생생하게 나타났다. 중년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김경선과 성승연(2012)의 연구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원가족 경험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이 아니라 가족관계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원가족과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관계 형성을 했던 경험이, 정서적인 결핍이나 수치심이나 무력감 및 욕구 좌절을 느끼게 하고,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지각하게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는 낮은 자기효능감과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원가족의 부모에게서 받은 심리적인 외상이 성인자녀의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쳐서 엄격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대와 갈등하며 심리적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시대와의 갈등은 남편에게 벽을 느끼게 하였고, 삶에 그늘을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효능적 신념이 매개변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와 성차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검토해 볼 필요성을 시사 하는 연구들이 있다. 오현주 등(2013)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원가족의 가부장적 경험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매개로 하여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남편의 원가족에서 가부장적 경험은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통해 남편 본인뿐만 아니라 아

내의 결혼만족도에도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자녀의 심리특성과 관계경험에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이는 질적 분석 결과들이 있다. 김병영 등(2011)이 유교적 가부장제의 남아선호 가정에서 성장한 기혼여성들이 경험한 원가족에 대한 가족관계경험을 분석하였을 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로 표현되었다. 차별의 아픔을 겪었고, 죄인과 같은 삶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 이러한 원가족에 대한 경험은 현재 가족 관계경험에서 자식에 대해 아픔과 고통의 대물림이 있었으며, 심리적으로는 관계 맺기에 대한 어려움과 견뎌내기 힘든 절망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양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보여주었다. 과도한 남아선호 가정에서 상처를 경험하며 성장한 기혼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심리적 역동은 아들로서 존중을 받은 기혼 남성의 원가족 경험과는 다르다.

결혼 이후에 원가족의 부모와 유대관계 및 원가족 건강성의 세대간 전이에서도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컨대 정서적 유대감이나 접촉 빈도 및 도움의 정도 등에서 성차가 있었다. 원가족이 성인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에 대한 보고들을 보면, 남순현과 한성열(2002)은 성인 아들이 성인 딸보다 원가족의 영향을 더욱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밝혔다. 하성희와 정혜정(2008)은 원가족 건강성의 세대 간 전이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부모-아들 모형에서 부모 세대의 원가족 건강성은 아들 세대의 원가족 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부모-

딸 모형에서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원가족 건강성은 딸의 원가족 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어머니의 원가족 건강성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

원가족 부모와 성인자녀 성별의 상호작용은 노부모 부양태도에서도 확인되었다. 부모의 노부모 부양태도가 동성의 자녀에게 세대간 전승을 하는 것으로 이원준과 신성자(2015)는 밝혔다. 박영신 등(2017)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부모 부양태도와 노부모부양효능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아버지 변인들은 유의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노부모부양효능감만 자녀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노부모 부양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 강력함을 시사하였다.

연구모형

한국인의 노부모 부양인식에 대한 토착심리를 탐구한 연구들(박영신, 김정희, 전성숙,

2016; 박영신 등, 2017)에서, 성인 원가족의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노부모부양 및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3대에 걸친 가족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 심리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일은, 노부모부양 심리의 메커니즘만이 아니라 한국 성인의 삶에 작용하는 원가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의 제안에 토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중년 성인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자기효능감,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개의 틀로 구성되었다.

첫째, 성인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행복을 증진시킬 것으로 가정되었다.

자기효능감이 행복이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임은 Bandura(1997)에 의해 자기효능감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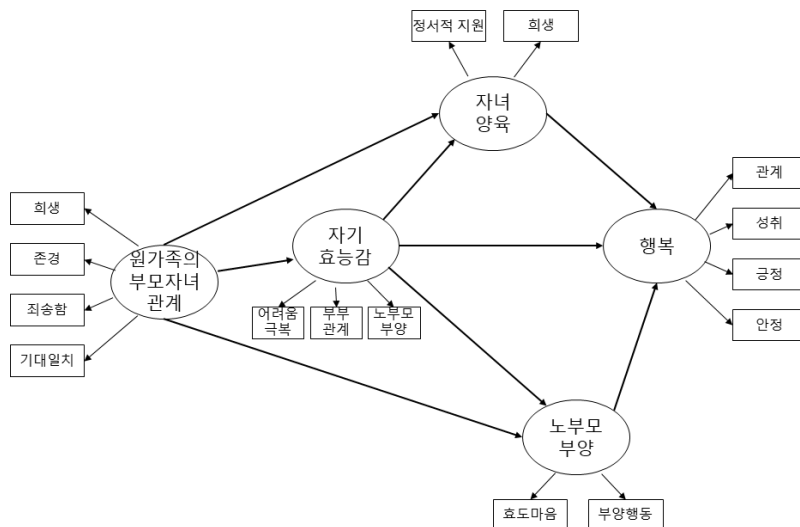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인이 제안된 이후로 폭넓게 검증되어 왔다.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경험과학적 검증 결과들(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증된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간의 결과가 성인을 대상으로도 검증(박경환, 2011)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8; 2009)에서 성인의 자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었으나,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포함된 모형은 아니었다.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성인의 행복에 영향(김정민, 최연, 2014)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의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박영신, 김의철, 2008; 2009)을 밝힌 결과들이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 맥락에서도 검증이 되는지를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그림 1에서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는 희생, 존경, 죄송함, 기대일치의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와 김태우(2015)는 부모자녀관계를 희생, 존경, 죄송함의 3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기대일치 하위변인은 박영신, 박영균, 김의철과 한기혜(2011)의 연구에서,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기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자녀의 기대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 결과에 토대하였다. 즉 부모의 기대에 대한 자녀의 기대일치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림 1에서 자기효능감은 어려움극복효능감, 부부관계효능감, 노부모부양효능감의 3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희생,

존경, 죄송함이 어려움극복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은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와 김태우(2015)의 연구에서, 부모의 기대에 대한 자녀의 기대일치가 어려움극복효능감에 영향이 있음은 박영신 등(2011)의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으로 부부관계효능감과 노부모부양효능감이 포함된 근거는 박영신 등(2016)의 연구에 토대한다. 즉 가족형태별로 은퇴 후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같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밝혀졌는데, 동시에 가족형태별로 부부관계효능감과 노부모부양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부모자녀관계가 부부관계효능감이나 노부모부양효능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행복은 관계, 성취, 긍정, 안정의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하위변인들은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분류한 것이다.

둘째, 성인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다.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긍정적인 모범이나 지침(이주연, 장선웅, 2011)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 부정적으로 양육하는 사례(김경선, 성승연, 2012)들은 흔히 발견된다.

또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경험이 현재 자신이 이룬 가정에서 자녀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김철근, 이완정, 2012;

한운정, 정혜정, 2014)이 있다. 이러한 자녀양육효능감은 결과적으로 자녀양육의 질(김영희 등, 2007)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에서 자녀양육은 정서적 지원과 희생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박영신 등(2016)의 연구에서 가족형태별로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나 자녀를 위한 희생과 같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변인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복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밝혀짐으로써, 이러한 자녀양육 하위변인들이 행복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셋째, 성인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노부모부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가정되었다.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긍정적인 관계 인식을 하는 경우는, 부모가 연로하였을 때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을 다시 되돌려 드리며 노부모부양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송기춘, 정혜정, 2010; 이신숙, 차용은, 2000)된다.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가 자신을 위해 헌신해 준 감사하고 존경하는 긍정적인 기억이 없다면, 노부모에 대해 헌신적으로 부양하고자 하는 정서가 생길 확률이 낮을(박소영, 조성희, 2010) 것으로 보인다.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노부모부양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노부모부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안되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박영신 등, 2014;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들로부터 시사된다.

그림 1에서 노부모부양은 효도마음과 부양행동으로 구성되었다.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와 김태우(2015)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효도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된 바 있다. 또한 박영신 등(2016)의 연구에서 가족형태별로 부양행동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밝혀짐으로써, 자기효능감과 부양행동의 관련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넷째, 성인의 행복은 자신의 심리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신의 관계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과도 연결될 것으로 가정되었다. 즉 적극적인 자녀양육 및 노부모부양도 각각 성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연구모형이 구성되었다.

한국인의 행복이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특성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인간관계에서의 역할 완수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은, 한국 문화가 개인중심이 아니라 관계중심이라는 가정(Kim, 1995)에 근거한다. 개인의 자유나 흥미나 독립성보다는 관계에서의 역할과 의무와 조화가 중요한 문화적 가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철학과 개념의 시각(Kim & Park, 2004)에서 만이 아니라, 경험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한국 성인은 가정이 화목할 때 가장 행복한 것으로 박영신, 김의철과 박선영(2013)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김의철 등(2000)의 연구에서도 가정화목은 자아실현이나 사회봉사 및 부귀영화보다 중요한 생활목표였다. 이러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든가 자신의 역할 충실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는데(박영신, 김의철, 2004), 이는 모두 가족관계를 요소로 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모형에서는 가족관계 중에서 수직적 관계에 해당하는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에 주목하

고, 이러한 변인들이 한국 성인의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분석대상

중년 성인을 위한 표집은 초, 중, 고,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로 하였다.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의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에서 학부모를 표집 함으로써, 표집대상은 자녀를 둔 대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였다. 표집대상은 총 2,665명이었다(남 1,290명; 여 1,375명).

표집대상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은 2,632명이었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로는 남자 1,275명, 여자 1,357명이었다. 자녀의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성인이 727명, 중학생 자녀를 둔 성인이 576명, 고등학교 자녀를 둔 성인이 750명, 대학생 자녀를 둔 성인이 579명이었다.

분석대상의 평균 연령은 45.44세(남 46.96세, 여 44.01세), 표준편차는 5.02(남 4.84, 여 4.77)이었다. 평균값 외의 집중경향치를 살펴보면, 중앙치는 45세(남 47세, 여 43세), 최빈치도 45

세(남 46세, 여 42세)이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40대 중반의 성인이 대부분이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약간 더 많았다.

표 2는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정리한 결과이다. 학력을 살펴보면, 남자는 대학교 졸업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많았다. 분석대상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고 고등학교 졸업이 이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며, 대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분석대상의 90% 이상의 비율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학력이 약간 더 높았다.

표 2에서 직업은 남자 경우에 사무/관리직이 거의 반수에 가깝게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 고위관리/전문직의 순서였다. 이에 비해 여자는 전업주부가 거의 반수에 가깝게 가장 많았고, 직업을 가진 경우는 판매/서비스직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관리직의 순서였다. 그러므로 성별로 직업 유무 및 직업 유형에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정경제수준을 5등급으로 분류했을 때, 표 2를 보면 중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4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표 1. 분석대상

	남	여	계
초등학생 부모	339	388	727
중학생 부모	284	292	576
고등학생 부모	373	377	750
대학생 부모	279	300	579
계	1,275	1,357	2,632

표 2.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학력]	성별			[직업]	성별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초등 졸	9 (.7)	9 (.7)	18 (.7)	전업주부/무직	15 (1.2)	588 (43.6)	603 (23.1)
중 졸	27 (2.1)	24 (1.8)	51 (1.9)	노동/생산직	194 (15.4)	106 (7.9)	300 (11.5)
고 졸	447 (35.2)	727 (53.9)	1,174 (44.8)	판매/서비스직	288 (22.8)	282 (20.9)	570 (21.8)
대 졸	687 (54.1)	544 (40.3)	1,231 (47.0)	사무/관리직	530 (42.0)	241 (17.9)	771 (29.5)
대학원 졸	101 (7.9)	46 (3.4)	147 (5.6)	고위관리/전문직	236 (18.7)	131 (9.7)	367 (14.1)
전체	1,271 (100.0)	1,350 (100.0)	2,621 (100.0)	전체	1,263 (100.0)	1,348 (100.0)	2,611 (100.0)

[가정경제수준]	성별			[사회계층]	성별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최하	12 (.9)	18 (1.3)	30 (1.1)	극빈층	12 (1.0)	18 (1.3)	30 (1.2)
하	173 (13.7)	230 (17.1)	403 (15.4)	하류층	81 (6.4)	95 (7.1)	176 (6.8)
중	941 (74.4)	977 (72.5)	1,918 (73.4)	중하층	331 (26.2)	393 (29.4)	724 (27.8)
상	131 (10.4)	116 (8.6)	247 (9.5)	중류층	594 (47.0)	609 (45.5)	1,203 (46.3)
최상	8 (.6)	7 (.5)	15 (.6)	중상층	219 (17.3)	206 (15.4)	425 (16.3)
전체	1,265 (100.0)	1,348 (100.0)	2,613 (100.0)	상류층	22 (1.7)	11 (.8)	33 (1.3)
				최상류층	4 (.3)	5 (.4)	9 (.3)
				전체	1,263 (100.0)	1,337 (100.0)	2,600 (100.0)

그 다음으로 하집단, 상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모두 동일하였다.

가정의 월평균수입은 527.17만원(남 540.98만원, 여 514.06만원)이었고, 최빈치는 500만원(남 500만원, 여 500만원), 중앙치는 490만원(남 500만원, 여 450만원)이었다. 그러므로 분석대상의 가정 월수입은 대부분 500만원 내외의 수준이었다.

표 2에서 주관적인 사회계층 지각을 살펴보면 본인이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0%

이상으로 대부분이었고, 상류층보다 하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로도 동일했다.

측정도구

질문지는 배경정보와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섯 개의 잠재변인들을 측정하는 변인들로 구성되었다. 분석대상의 배경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7개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그 중

에서 연령과 월평균수입은 응답자가 직접 기록하였다. 이외에 성별, 학력, 직업, 가정경제 수준, 사회계층 변인에 대해서는 주어진 답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측정변인의 문항 수와 신뢰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 변인은 평소에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생각으로서, 희생, 존경, 죄송함, 기대일치의 4개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답지는 '전혀 아니

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였다. 4개 측정변인(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 잠재변인의 전체 신뢰도는 .96으로 매우 높았다.

희생은 부모의 희생에 대한 성인자녀의 지각을(문항 예: 부모님은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다), 존경은 부모에 대해 평소에 존경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문항 예: 부모님이 존경스럽다). 희생과 존경은 박영신과 김의철

표 3. 측정변인의 문항 수와 신뢰도

잠재변인	측정변인	문항 수	Cronbach's α		
			전체	남자	여자
원가족 부모자녀관계	희생	6	.92	.93	.92
	존경	6	.92	.92	.92
	죄송함	6	.84	.85	.84
	기대일치	6	.85	.85	.85
	전체	24	.96	.96	.96
자기효능감	어려움극복	6	.90	.90	.90
	부부관계	6	.90	.90	.89
	노부모 부양	6	.84	.86	.83
	전체	18	.93	.94	.93
자녀양육	정서적 지원	6	.87	.88	.87
	희생	6	.87	.87	.86
	전체	12	.90	.91	.89
노부모 부양	효도마음	3	.86	.86	.86
	부양행동	3	.88	.89	.88
	전체	6	.90	.90	.90
행복	관계	3	.73	.75	.72
	성취	4	.78	.78	.78
	긍정	3	.73	.73	.72
	안정	4	.71	.74	.69
	전체	14	.90	.90	.90

(2006)이 제작한 6개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신뢰도는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Cronbach $\alpha=.92\sim.93$). 죄송함은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죄송한 정도를 의미한다(문항 예: 부모님에게 더 잘 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죄송함은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와 김태우(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6개 문항을 사용했는데, 신뢰도는 양호하였다($\alpha=.84\sim.85$). 이는 박영신, 김의철과 정갑순(2004)의 연구에서 제작한 7개 문항 중에 6개를 선정하고, 7점 척도를 5점 척도로 수정한 것이다. 기대일치는 부모의 기대에 일치하려는 마음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값이 높을수록 부모의 기대에 일치함을 의미한다(문항 예: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기대일치는 이 연구에서 제작하였으며 신뢰도는 .85로 양호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 변인은 어려움극복효능감, 부부관계효능감, 노부모부양효능감의 3개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은 문항이 6개씩이었다. 답지는 '전혀 잘 할 수 없다'에서 '매우 잘 할 수 있다'의 5점 척도이고, 값이 클수록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개 측정변인(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효능감 잠재변인의 전체 신뢰도는 .93으로 매우 높았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은 Bandura(1995)의 성인용 어려움극복효능감(resiliency of self-efficacy) 7개 문항을 박영신(1997)이 번역해서, 고등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 바 있다($\alpha=.91$). 6개 문항을 선별하여 5점 척도로 실시했을 때, 박영균 등(2010; 청소년 아버지 $\alpha=.80$, 청소년 어머니 $\alpha=.81$), 박영신과 이경란(2014; 회사원 $\alpha=.83$, 교사 $\alpha=.89$), 박영신, 이경란, 안자영과 이상희(2015;

초, 중, 고등학교 교사 $\alpha=.89\sim.91$), 박영신 등(2016; 초, 중, 고, 대학생 부모 $\alpha=.8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동일 질문지로 초, 중, 고 대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alpha=.90$, 문항 예: 매우 심한 좌절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박영신과 김의철(2011)의 간편용 질문지(5개 문항)에서 성인 남녀의 신뢰도는 .84였다.

부부관계효능감은 박영신 등(2016)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수는 6개였으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이었다(문항 예: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박영신 등(201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8 이었다.

노부모부양효능감은 박영신 등(2016)이 제작한 6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문항 예: 당신은 노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잘 해드릴 수 있습니까?). 박영신 등(2016, 2017)의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구한 신뢰도는 모두 .84였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를 구한 결과도 .84로서, 일관된 신뢰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자녀양육 변인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희생의 2개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지시문은 평소에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질문하고, 답지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제작되었다. 높은 값을 나타낼수록 자녀에 대해 평소에 정서적 지원을 많이 하고 희생적인 자세로 양육함을 의미한다. 2개 측정변인(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녀양육 잠재변인의 전체 신뢰도는 .90으로 매우 높았다.

정서적 지원(문항 예: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은 박영신 등(2016; $\alpha=.88$)이 제작한 6개 문항이었으며 신뢰도는 .87이었다.

이 문항들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정서적 지원을 측정하는 문항 6개(김의철, 박영신, 1999)를 기초로 했다. 문항 내용은 동일했고, 지시문만 성인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을 측정하도록 수정되었다.

희생(문항 예: 나는 자녀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한다)은 박영신 등(2016; $a=.86$)이 제작한 6개 문항을 사용했으며, 신뢰도는 .87이었다. 이 문항들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희생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문항 6개(박영신, 김의철, 2006;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를 기초로 하였다. 문항 내용은 동일하였고, 성인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를 나타내도록 문항의 표현과 지시문을 수정하였다.

노부모부양 변인은 효도마음과 부양행동의 2개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답지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였다. 값이 클수록 노부모부양과 관련하여 효도의 마음이 강하고, 실제로 부양행동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2개 측정변인(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된 노부모부양 잠재변인의 전체 신뢰도는 .90으로 높았다.

효도마음은 박영신 등(2016; $a=.85$)이 제작한 문항을 사용했다. 성인이 노부모에 대해 평소에 갖고 있는 효도의 마음을 측정하며(문항 예: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노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마음이 강하다), 신뢰도는 .86이었다. 이 문항들은 고등학생 부모의 자녀 효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3개 문항을(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 기초로 하였다. 문항 내용은 동일했고, 성인의 노부모에 대한 효도 마음을 측정하는데 적절하도록 문항의 표현과 지시문을 수정하였다.

부양행동은 박영신 등(2016; $a=.86$)이 제작

한 부양행동 변인을 그대로 사용했다. 평소에 노부모부양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잘하는가를 측정하며(문항 예: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노부모님을 잘 부양한다), 신뢰도는 .88이었다.

행복 변인은 관계(문항 예: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성취(문항 예: 나의 교육적인 성취수준에 자부심을 갖는다) 긍정(문항 예: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안정(문항 예: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을 측정하는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측정변인의 신뢰도는 .71~.78이었으며, 4개 측정변인들(총 14개 문항)로 구성된 행복 잠재변인의 전체 신뢰도는 .90으로 높았다. 총 14개 문항은 박영신과 김의철(2009)이 제작한 행복 척도(15개 문항) 중에서 전반적 행복을 측정하는 1개 문항을 제외한 것이다. 15개 문항으로 전반적 행복을 측정했을 때 신뢰도는 양호하였다(박영신, 김의철, 2009, $a=.88$; 박영신, 김의철, 2011, $a=.91$; 박영신 등, 2016, $a=.90$).

실시 및 분석방법

질문지의 배부는 초 중 고등학교 경우에 담임선생님 또는 수업담당 교사 및 상담교사가, 대학교 경우에 수업담당 교수가, 연구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였다. 각 급 학교 학생들에게 부모용 질문지를 받아 오도록 협조를 구했으며, 질문지 실시에 협조하는 학생들 및 응답한 부모들에게 답례를 했다. 질문지에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자유의사에 따라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혔다. 질문지 실시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30분 정도로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는 응답에 불성실한 경우가 있는지, 연구자에 의해 모두 검토되었다. 여러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다는가, 동일한 답지를 연속해서 선택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질문지들을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이 선정된 뒤에, 분석대상의 배경정보 및 연구 결과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는 SPSS 21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Mplus 6을 사용했고, 가설적 모형의 계수 산출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L)을 활용하였다.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심리특성과 관계경험에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친 결과들(김병영 등, 2011; 남순현, 한성열, 2002; 박영신 등, 2017; 이원준, 신성자, 2015; 하성희, 정혜정, 2008)에 토대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는 변인들에 대해 성별 차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모형도 남자와 여자집단 각각별로 분석하였다.

결 과

성별 원가족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자녀양육, 노부모부양 및 행복의 차이

성별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자녀양육, 노부모부양 및 행복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가 표 4이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 중에서 기대일치에서만 성별로 유의한 차이($p < .05$)가 있었고, 남자의 평균이 더 높았다. 그러므로 성인 남자가 여자보다 부모의 기대에 일치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했다. 그러나 성인들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 및 부모의 희생에 대한 지각, 부모에 대한 존경심, 부모에 대한 죄송함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4를 보면, 자기효능감에서는 전체 자기

효능감($p < .001$), 어려움극복효능감($p < .001$)과 노부모부양효능감($p < .01$)이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부부관계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남자가 자기효능감 전체, 어려움극복효능감과 노부모부양효능감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므로 성인 남자가 여자보다 전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더 높고, 특히 어려움극복효능감과 노부모부양효능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양육의 경우에 자녀양육 전체와 정서적 지원에서는 성별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희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여자가 자녀양육 전체 및 정서적 지원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므로 성인 여자가 남자보다 자녀양육에 더욱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녀에 대해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부양에서 노부모부양 전체($p < .05$)와 효도마음($p < .001$)에서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부양 행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표 4 참고). 남자가 노부모부양 전체와 효도마음의 평균이 더 높음으로써, 성인 남자가 전반적으로 노부모부양을 더 많이 하며, 특히 효도마음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부양 행동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행복에서 성취($p < .05$)와 안정($p < .05$)은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행복 전체 및 관계와 긍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참고). 남자가 성취 및 안정에서 평균이 더 높음으로써, 성인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성취나 안정과 관련된 행복감이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행복 수준 및 관계와 긍정에 관련된 행복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표 4. 성별 원가족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자녀양육, 노부모부양 및 행복의 차이 t-검증

변인	성별	남자	여자	t
	통계치	\bar{X} (sd)	\bar{X} (sd)	
원가족 부모자녀관계				
희생		4.17 (.77)	4.12 (.77)	1.45
존경		4.13 (.75)	4.10 (.77)	.93
최송함		4.02 (.71)	3.97 (.73)	1.73
기대일치		3.96 (.68)	3.89 (.70)	2.42 *
전체		4.07 (.67)	4.02 (.68)	1.76
자기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3.72 (.64)	3.55 (.66)	6.78 ***
부부관계효능감		3.58 (.71)	3.55 (.71)	1.16
노부모부양효능감		3.42 (.65)	3.34 (.62)	3.14 **
전체		3.58 (.58)	3.48 (.56)	4.23 ***
자녀양육				
정서적 지원		3.65 (.70)	3.87 (.62)	-8.63 ***
희생		3.86 (.67)	3.88 (.64)	-.95
전체		3.75 (.62)	3.88 (.56)	-5.37 ***
노부모부양				
효도마음		3.48 (.77)	3.37 (.77)	3.58 ***
부양 행동		3.12 (.85)	3.10 (.85)	.60
전체		3.30 (.74)	3.24 (.74)	2.25 *
행복				
관계		3.96 (.69)	3.97 (.71)	-.53
성취		3.52 (.68)	3.46 (.69)	2.11 *
긍정		3.64 (.69)	3.68 (.70)	-1.48
안정		3.27 (.74)	3.21 (.74)	2.12 *
전체		3.60 (.59)	3.58 (.60)	.70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표 4에서 이 연구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의

성별 차이를 검토한 결과, 5개 잠재변인 중에 3개의 잠재변인, 즉 자기효능감, 자녀양육, 노부모부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2개의 잠재변인, 즉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와 행복에서도, 일부 측정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이 연구에서 다루는 변인들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별 변인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성별 집단별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를 남자와 여자 집단별로 구하였다.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를 구한 결과가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 집단을 대상

으로 분석한 표 5를 보면,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의 4개 측정변인들의 평균은 모두 4.0 내외로서 높은 값을 보였고, 특히 부모 희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성인 남자들은 원가족에서 노부모의 희생에 대한 지각을 많이 하고 있으며, 노부모에 대한 존경심 및 노부모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마음 및 노부모의 기대에 일치하려는 정도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3개 측정변인들도 모두 3.5

표 5. 측정변인의 상관관계와 집중경향치: 남자 집단

남자 집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부모 희생	1.00														
② 부모 존경	.86	1.00													
③ 부모에 대한 죄송함	.79	.76	1.00												
④ 부모의 기대일치	.76	.79	.77	1.00											
⑤ 어려움극복효능감	.26	.29	.18	.37	1.00										
⑥ 부부관계효능감	.22	.27	.15	.33	.62	1.00									
⑦ 노부모부양효능감	.30	.35	.21	.41	.62	.65	1.00								
⑧ 자녀양육: 정서적 지원	.31	.33	.26	.37	.42	.48	.41	1.00							
⑨ 자녀양육: 희생	.36	.32	.33	.40	.39	.38	.36	.63	1.00						
⑩ 효도마음	.32	.33	.23	.33	.32	.31	.46	.34	.34	1.00					
⑪ 부양행동	.20	.21	.07	.23	.27	.31	.51	.30	.27	.65	1.00				
⑫ 행복: 관계	.31	.35	.24	.40	.48	.53	.51	.43	.36	.33	.31	1.00			
⑬ 행복: 성취	.22	.27	.12	.35	.57	.51	.56	.41	.32	.34	.34	.60	1.00		
⑭ 행복: 긍정	.23	.29	.15	.37	.62	.57	.55	.43	.33	.34	.30	.58	.77	1.00	
⑮ 행복: 안정	.16	.20	.05	.27	.42	.49	.56	.30	.21	.31	.36	.46	.67	.65	1.00
평균	4.17	4.13	4.02	3.96	3.72	3.58	3.42	3.65	3.86	3.48	3.12	3.96	3.52	3.64	3.27
표준편차	.77	.75	.71	.68	.64	.71	.65	.70	.67	.77	.85	.69	.68	.69	.74
침도	.88	.34	.20	.00	.10	.17	.29	.38	.24	.23	.10	-.16	.09	-.13	-.22
편포도	-.98	-.78	-.56	-.44	-.15	-.33	-.18	-.32	-.36	-.12	-.09	-.36	-.07	-.01	.13

내외의 평균값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려움극복효능감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성인 남자 집단의 자기효능감이 높았는데, 특히 어려움극복효능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양육의 2개 측정변인 모두 3.5 이상의 평균을 보였고, 희생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자들은 자녀양육에서 희생적이며, 정서적 지원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부양의 2개 측정변인 모두 3.0 이상의 평균을 보였으나, 자녀양육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측정변인 중에서 부양행동은 효도마음보다 평균이 낮았다. 그러므로 성인 남자들이 노부모부양에 대해 긍정적이나 자녀양육에 헌신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노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 대비 실제적인 부양행동의 정도는 미약했다.

행복의 4개 측정변인 평균은 모두 3.5 내외였고, 상대적으로 관계의 평균이 4.0에 가깝게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성인 남자 경우에 전반적으로 행복한 편인데, 특히 인간관계와 관련된 행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가설적 모형의 계수 산출방법으로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기 위해, 측정변인의 정상분포 가정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였다. 표 5에 제시한 모든 측정변인의 첨도와 편포도를 검토해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는 기준(Kline, 2011; 김수영, 2016 재인용)과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는 기준(Curran, West & Finch, 1996; 김수영, 2016 재인용)에 비추어 볼 때, 성인 남자 데이터에 기초한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

기 위해 같은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아닌, 다른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김수영(2016)은 상관계수의 경우 정확한 기준이 없고 연구에 따라 다르나, $r=.70$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표 5에서 다른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모두 $r=.70$ 이하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6은 성인 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변인의 집중경향치와 상관관계를 정리한 결과이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의 4개 측정변인들의 평균은 모두 4.0 내외로서 대단히 높았고, 특히 부모 희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성인 여자들이 원가족에서 노부모의 희생에 대한 지각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점에서, 성인 남자와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의 측정변인들 평균은 모두 3.5 내외였고, 노부모부양의 측정변인들 평균은 모두 3.0 이상이었으나, 남자 집단보다는 약간 낮은 값을 보였다. 반면에 자녀양육의 측정변인들 평균은 모두 3.5 이상의 평균을 보였는데, 남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행복의 측정변인 평균은 모두 3.5 내외였고, 관계의 평균이 4.0에 가깝게 가장 높은 점에서 남자 집단과 유사하였다.

표 6에 제시한 모든 측정변인의 첨도와 편포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집단 데이터도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Curran 등, 1996; Kline, 2011; 김수영, 2016 재인용).

표 6에서 다른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5의 남자집단

표 6. 측정변인의 상관관계와 집중경향치: 여자 집단

여자 집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부모 희생	1.00														
② 부모 존경	.86	1.00													
③ 부모에 대한 죄송함	.79	.75	1.00												
④ 부모의 기대일치	.74	.76	.76	1.00											
⑤ 어려움극복효능감	.24	.28	.16	.34	1.00										
⑥ 부부관계효능감	.23	.24	.11	.28	.54	1.00									
⑦ 노부모부양효능감	.32	.38	.23	.42	.64	.60	1.00								
⑧ 자녀양육: 정서적 지원	.26	.28	.18	.28	.36	.34	.34	1.00							
⑨ 자녀양육: 희생	.29	.26	.28	.31	.30	.22	.29	.55	1.00						
⑩ 효도마음	.27	.29	.19	.33	.34	.27	.50	.33	.30	1.00					
⑪ 부양행동	.14	.15	.04	.21	.30	.30	.48	.29	.24	.67	1.00				
⑫ 행복: 관계	.26	.28	.14	.30	.43	.49	.45	.43	.22	.29	.32	1.00			
⑬ 행복: 성취	.23	.27	.09	.31	.53	.46	.50	.39	.21	.31	.33	.61	1.00		
⑭ 행복: 긍정	.22	.27	.10	.31	.55	.50	.47	.42	.22	.30	.33	.65	.78	1.00	
⑮ 행복: 안정	.15	.18	.00	.23	.38	.44	.45	.27	.07	.22	.28	.47	.66	.61	1.00
평균	4.12	4.10	3.97	3.89	3.55	3.55	3.34	3.87	3.88	3.37	3.10	3.97	3.46	3.68	3.21
표준편차	.77	.77	.73	.70	.66	.71	.62	.62	.64	.77	.85	.71	.69	.70	.74
침도	.63	.40	.18	.13	.28	.53	.34	-.05	-.26	.25	.29	.08	-.05	-.21	-.16
편포도	-.89	-.78	-.62	-.48	-.17	-.49	-.16	-.25	-.26	-.04	-.14	-.46	-.05	-.17	.05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모두 $r=.70$ 이하였다. 따라서 여자집단 데이터에서도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낮다(김수영, 2016)고 할 수 있다. 표 5의 남자집단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관계수 값은 달랐지만 전반적인 패턴은 유사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

성인 남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비록 $\chi^2=929.489$, $df=82$

로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고, RMSEA=.090으로서 .08을 초과하여 낮은 적합도를 보이지만, CFI=.932, TLI=.913로 모두 .90 이상이고, SRMR=.056으로서 .08 이하의 값을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그림 2에서 관계에서의 행복이 행복 구인에 대해 .686의 부하량을 보이는 외에는 모든 측정변인들이 .70 이상의 부하량을 보임으로써, 이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들은 측정변인들에 의해 양호하게 측정되었다. 특히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는 부모 존경과 부모 희생이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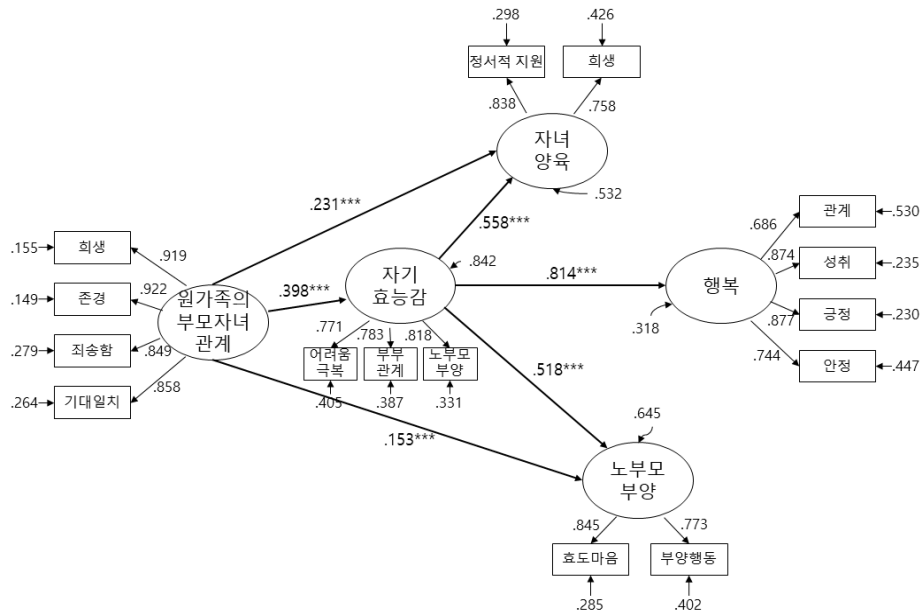


그림 2. 검증모형: 남자 집단

각 .922, .919의 값으로 설명됨으로써,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잠재변인들간의 경로계수를 보면 자녀양육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와 노부모부양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으로써($p > .05$), 그림 1의 개념모형에 가정했던 경로 중에 두 경로가 삭제되었다. 이 두 경로를 제외하고는 개념모형에 제시한 모든 경로들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기효능감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계수는 .814로 매우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에서 자녀양육 및 노부모부양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각각 .558과 .518로 높은 계수를 보였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및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398, .231로 정적인 계수를 나타내었다. 원가족 부모관계에서 노부모부양으로 연결된 경로

도 매우 유의하였으나($p < .001$), 계수가 .153으로 다른 경로계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토대해 볼 때,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행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행복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모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데 비해, 자녀양육이나 노부모부양은 행복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쳤는데, 자기효능감은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보다 자녀양육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는 노부모부양에 영향을 미쳤고, 자기효능감은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보다 노부모부양에 더 큰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원가족의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성인 남자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행복

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표 7은 그림 2의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결과에 토대하여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정리한 결과이다. 성인 남자의 행복에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총합은 .331로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부트스트랩 결과 95% 신뢰구간이 .279~.383으로 간접효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효과의 경로들을 각각 분석한 결과는 다른 경로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을 거쳐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의 간접효과만이 .324로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부트스트랩 결과 95% 신뢰구간이 .256~.391로 의미 있는 간접효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성인 남자의 경우에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서, 결과적으로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은 성인 여자만을 대상으로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의 적합

도 검증 결과를 보면, $\chi^2 = 973.965$, $df = 82$ 로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고, RMSEA=.090 으로서 .08을 초과하여 약간 낮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CFI=.928, TLI=.908로 모두 .90 이상의 값을 보이고, SRMR=.058로서 .08 이하므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이었다.

자녀에 대한 희생이 자녀양육 구인에 대해 .625의 부하량을 보이는 외에는, 모든 측정변인들이 .70 이상의 부하량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그림 3에 제시된 잠재변인은 측정변인들에 의해 정확하게 측정되고 있다. 특히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는 부모 희생과 부모 존경의 부하량이 각각 .924, .917로써,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경로계수가 가장 큰 값을 보인 경로는 자기효능감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683)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에서 노부모부양 및 자녀양육으로 연결되는 경로도 각각 .595과 .457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에서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402) 및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양육으로 연결되는 경로(.172)도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그러나 원가족 부모자

표 7. 간접효과분석: 남자 집단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CI구간
간접효과 총합				
원가족 부모자녀관계→행복	.223	.023	.331***	.279~.383
간접효과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자녀양육→행복	.002	.006	.003	-.015~.022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자기효능감→행복	.218	.027	.324***	.256~.391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노부모부양→행복	.000	.004	.000	-.013~.014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자기효능감→자녀양육→행복	.002	.006	.003	-.014~.021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자기효능감→노부모부양→행복	.000	.006	.000	-.016~.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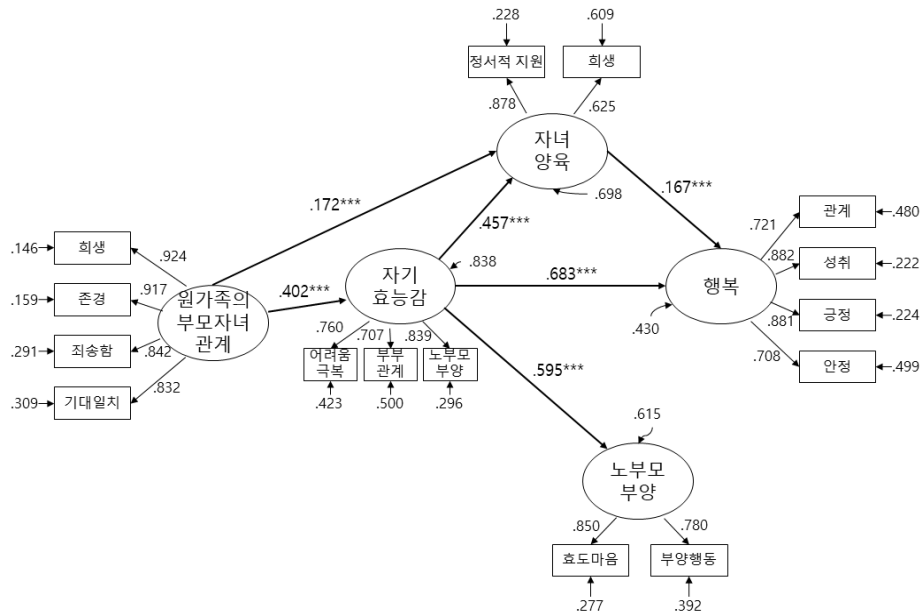


그림 3. 검증모형: 여자 집단

녀관계에서 노부모부양으로 연결된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p > .05$) 삭제되었다. 또한 노부모부양에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경로도 유의하지 않았다($p > .05$). 따라서 그림 1의 연구모형에 가정했던 경로 중에 두 경로가 삭제되었다.

표 8은 그림 3의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결과를 기초로, 성인 여성의 원가족 부모자녀관

계가 행복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총합은 .320으로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부트스트랩 결과 95% 신뢰구간이 .275~.364로 간접효과가 의미 있게 나타났다.

각각의 간접효과 경로들의 유의도를 분석한

표 8. 간접효과분석: 여자 집단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CI구간
간접효과 총합				
원가족 부모자녀관계→행복	.232	.020	.320***	.275~.364
간접효과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자녀양육→행복	.021	.007	.029**	.010~.048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자기효능감→행복	.199	.021	.275***	.223~.326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노부모부양→행복	-.002	.002	-.003	-.010~.004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자기효능감→자녀양육→행복	.022	.006	.031***	.015~.046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자기효능감→노부모부양→행복	-.008	.007	-.012	-.031~.008

결과, 노부모부양을 거치는 2개의 경로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p > .05$). 나머지 3개의 경로들은 유의하였는데, 특히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을 거쳐 행복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가 .275로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부트스트랩 결과 95% 신뢰구간이 .223~.326으로 간접효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및 자녀양육을 거쳐 행복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가 .031로서 $p < .001$ 수준에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양육을 통해 행복에 이르는 경우는 간접효과가 .029인데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성인 여자도 성인 남자와 마찬가지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서, 결과적으로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행복 증진에 가장 많이 기여하였다. 그러나 성인 여자는 성인 남자와 달리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양육을 통해 행복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이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네 측면, 첫째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둘째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셋째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노부모부양에 미치는 영향, 넷째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이어서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원가족이 성인의 심리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행복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영향이 이 연구에서 밝혀졌다(그림 2, 그림 3, 표 7, 표 8 참고).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는 성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행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성인의 높은 자기효능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였으며,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행복을 증진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 결과를 재확인해 주고 있다. 즉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기효능감이 행복을 증진시켰는데, 성인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변인들 사이의 관계가 검증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박경환, 2011)와도 일치한다. 성인의 자기효능감이 가정생활만족도나 행복에 미치는 영향(박영신, 김의철, 2008; 2009)이,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포함한 모형에서도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가족 경험이 성인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기 관련 심리특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오종현, 2016) 결과와 일치하여, 이 연구에서도 성인의 행복은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성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 연구(김정민, 최연, 2014)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그동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 및 행복에 중요한 영향이 있음을 밝혀 왔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부모의 영향이 아동 청소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가 지속적으로 삶에 대한 효능감과 삶의 행복 수준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부모의 영향이 아동 청소년기만이 아니라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되는 삶에서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에 관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계속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갖고 자녀양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를 제공한다.

한편 원가족의 건강성이 행복과 무관하다는 결과도 있다. 예를 들어 최연우와 백용매(2010)가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친밀감 및 고부갈등이 기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부부친밀감과 고부갈등이 의미 있는 예언변인으로 포함되었으나, 원가족 건강성은 결혼만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전반적인 삶의 행복감인데 비해 최연우와 백용매(2010)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이 결혼만족도였다. 이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행복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최연우와 백용매(2010)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에 대해 원가족의 영향보다는 현재 가족에서 부부간 친밀도와 고부갈등이 더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나감에 있어, 측정변인의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변인들과의 연구설계를 정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원가족의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성인의 인간관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Kiviniemi 등, 2011) 밝혀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관계 중에서도 수직적 가족관계인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이라는 부모자녀관계에 관심을 두었다.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직접적인 영향만이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 그림 3 참고). 그러므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성인이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긍정적인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을 높여서,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자녀양육에 더욱 헌신하게 하는 간접적인 작용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성인의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모범이 된다는 선행연구(이주연, 장선웅, 2011) 결과와 일관된 맥락이다. 마찬가지로 원가족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성인은, 자녀를 부정적으로 양육하는 결과(김경선, 성승연, 2012)를 보인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성인 남녀 집단 모두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원가족의 정서분위기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양육자신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김영희 등, 2007) 결과와

도 일치한다. 또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자녀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김철근, 이완정, 2012; 한윤정, 정혜정, 2014), 자녀양육의 질이 달라진다는 결과(김영희 등, 2007)들과도 일관된 맥락이다.

이 연구에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양육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선행연구(한윤정, 정혜정, 2014)에서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애착이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양육의 세대 간 전이에 주목하게 한다. 원가족에서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경험한 경우는, 원가족에서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모델링해서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양육효능감도 높아짐으로써, 양육의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양육에 직접적으로 또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세대전승 되고 있음은, 기혼 남자에 대한 다른 선행연구(연은경, 김영희, 2014)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는 성인이 되었을 때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관계 중에서도 성인자녀가 새롭게 이루는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모델을 통해 자녀교육이 대물림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한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희생적으로 양육하고,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부모의 기대에 일치하려고 노력하고,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잘 부응하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관계를 경험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 부모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에 대해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게 될 확률이 높다(그림 2, 그림 3 참고).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태도가 대물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노부모부양에 미치는 영향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노부모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성인 남자는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노부모부양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나(그림 2 참고), 성인 여자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직접적 영향이 없었다(그림 3 참고). 물론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노부모부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성인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노부모부양을 더욱 잘 하는 점에서는 남녀 모두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노부모부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성인 남자에게서만 나타났다.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애정적 결속감과, 일상생활 가치관이 일치하는 일치적 결속만이 아니라, 노부모부양에 대한 의무감을 의미하는 규범적인 결속감까지도, 결혼하기 전 원래의 가정에서 가족 간에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송기춘, 정혜정, 2010). 이와 같이 성인자녀가 노부모에 대해 효도하는 마음이 어린 시절 가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에 토대함을 밝힌

선행연구들(박소영, 조성희, 2010; 이신숙, 차용은, 2000)이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의 노부모부양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성인 남자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자녀양육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남녀 모두 동일한데,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노부모부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남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사실(그림 2, 그림 3 참고)은 특이하다. 성인 남자가 여자보다 효도마음이 더 많고 전반적으로 노부모부양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표 4 참고)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성인 남자가 여자보다 노부모부양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강하게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에서 아들로서의 책임감이,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노부모부양을 더욱 잘 하게 되는 성인 남자들의 심리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노부모부양에 미치는 영향이 남자와 여자 집단에서 다르게 나온 결과는, 노부모부양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성차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예컨대 선행연구(Silverstein, Parrott & Bengtson, 1995)에 의하면, 아들과 딸은 노부모부양 동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들은 노부모부양의 의무라든가 접촉 빈도 등과 같은 변인들이 노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동기화시켰다면, 딸은 부모와의 애정이 노부모 지원의 동기로 대표적인 차이가 있었다.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노부모부양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성차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2007년 12월까지의 아들을 통해 가계가 계승되는 호주제도가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중년기 성인들이 아동기에 성장해 온 가정환경은 가부장제도의 영향을 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 중심 가족구조에서 아들을 통해 대를 잇고 가문을 이어가며, 아들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집안의 책임을 맡아왔다. 부계혈통 중심의 가계계승이 중요했던 가정에서 아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딸과 달랐다.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들과 딸이 경험하는 노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을 확률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남아선호 가정에서 성장한 기혼여성의 가족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김병영 등, 2011)는 성별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에서 얼마나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노부모부양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차는,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중년 성인들이 출생한 이후에 성별에 따라 부모와 상호작용이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원가족 건강성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하성희, 정혜정, 2008)가 밝혀진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아들이 대를 잇는다는 것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성별에 따라 다른 양육태도를 보인 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남자 경우에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의 유대가 강할수록 노부모부양에 대한 책임과 실천도 더 강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남자와 여자의 노부모부양 태도에서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성인 여자는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노부모부양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인 여자의 경우에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시부모와 갈등에 직

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박소영, 조성희, 2010)과 불일치한다. 이와 같이 다른 결과는 이 연구 경우에 노부모부양을 시부모 부양과 같이 특정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부모부양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의 차이일 수도 있다. 응답자에 따라서는 본인의 부모를 연상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부모를 연상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이 정교하게 구분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인식이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인의 노부모인지 배우자의 노부모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여 측정하고 분석한다면, 보다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노부모부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성인 남자에게서만 나타났다고 해서 성인 여자의 경우에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인 여자의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나타났다(그림 3 참고).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은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박영신 등, 2014;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들과 일관된 맥락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박소영, 조성희, 2010; 송기춘, 정혜정, 2010; 이신숙, 차용은, 2000)에서 밝혀진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노부모부양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성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서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구분하여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성별로 공통적임을 밝혔다. 그동안 자기효능감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는 의

미 있는 기제로 밝혀져 왔는데(Bandura, 1997),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와 노부모부양의 역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대단히 유용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성인의 행복은 자기효능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관계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에도 연결될 것으로 가정되었으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검증되었다. 즉 자녀양육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 여자 집단에서만 유의하였고, 성인 남자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노부모부양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2, 그림 3 참고).

관계중심의 한국문화(Kim, 1995)에서 한국인의 행복은 인간관계와 밀접히 관련될 것으로 가정되었고, 일련의 경험과학적 결과들이 이를 검증해 왔다. 화목한 가정이 생활의 목표(김의철 등, 2000)이자 행복(박영신 등, 2013)의 핵심 조건으로 밝혀졌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충실이 중요(박영신, 김의철, 2004)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에 토대하여 이 연구에서 수직적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한국 성인의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녀양육이나 노부모부양보다는 자기효능감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그림 2, 그림 3 참고).

이 연구의 결과는 중년기 성인의 행복이 가족관계에서의 역할 충실보다도 개인의 자기효능감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선행연구들(박영신, 김

의철, 2008; 2009)에서, 성인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져 왔다.

한편 성인 남자는 자녀양육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는데, 성인 여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가계계승을 위해 아들에 대한 선호가 있었고, 이와 동시에 딸은 출가외인으로 결혼을 하면 시집으로 호적이 바뀌면서 대를 이을 아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남아선호사상과 더불어, 남자는 바깥일을 여자는 집안일을 책임진다는 역할 인식에 대한 사회규범이 여성들에게 내면화되어, 현재 한국 사회의 중년기 여자는 남자보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일을 통해 더욱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부모부양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 집단에서도 모두 의미 없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관계 중심의 한국문화에 대한 가정(Kim, 1995)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성인의 노부모부양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인간의 도리를 하는 차원인 것이지, 이것이 본인 삶의 행복으로까지 적극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인 여자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을 헌신적으로 잘 하는 것이 본인 삶의 행복에 의미 있는 영향이 있었다. 성인 남녀의 행복에 노부모부양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데, 성인 여자의 행복에 자녀양육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중년기 여성들에게 자녀양육에의 적극적인 개입이 행복을 결정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부모부양보다는 자녀양육을 더 중시하는 한국 사회

의 세태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노부모부양이 행복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중년기 성인이 청소년 자녀보다 노부모부양효능감이 낮고, 노부모 부양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연구(박영신 등, 2017) 결과와도 관련된다. 세대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노부모부양의 역할을 생각만으로 추측하는 청소년에 비해 성인들 경우는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고, 이에 따른 부양부담과 부양스트레스가 노부모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성인의 노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였을 때(박영신 등, 2016), 노부모를 부양하면 좋은 점으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화목이, 노부모를 부양할 때의 어려움으로 의견 차이와 경제적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노부모부양이 성인자녀의 행복에 아무런 긍정적인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그림 2, 그림 3 참고)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한국 성인들이 노부모를 부양할 때 사람구실을 하는 기쁨과 보람으로 인식되기에는, 노부모를 부양하면 힘들고 어려운 점이 더 크게 부각되어, 노부모부양의 긍정적인 측면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성인 남녀는 노부모를 부양함으로써 인간으로 도리를 다한다는 전통사회 규범적 가치에 토대한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를 교육하며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책임과 녹록치 않은 현실 아래에서, 노부모부양이라는 주어진 관계적 역할을 다 잘 감당하기에는 지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압력을 받는 정도가 큰 것

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가 외형적으로는 서구화 되었어도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고(장성숙, 2007), 세대별로 다른 가치의식은 가족 간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한 가족갈등 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는 장모와 사위 관계에서의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유연진 등, 2008)을 미치고,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위협 받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을 지향하지만, 오히려 가족 상호간에 지나친 기대와 의존이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함으로써, 가족주의 가치는 양면의 영향력을 갖는다. 이는 성인자녀가 노부모에 대해 양가감정(문정희, 안정신, 2014)을 갖고 있고, 노부모와 함께 할 때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박영신 등, 2017)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즉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만족과 행복감을 선물해 주기에는 부양스트레스가 높게 지각되어서, 그림 2와 그림 3에서 경로선이 의미 없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성인들 경우에 노부모를 부양할 때 좋은 점으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됨이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이러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됨에 비해 자식의 도리를 다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박영신 등, 2017). 이러한 사실은 노부모부양 자체가 갖는 효도와 보람보다는 오히려 자녀양육을 위한 수단적 가치가 더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연구에서 노부모부양은 성인의 행복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노부모부양보다 자녀양육에 더욱 개입하였다는 연구(Fingerman, Pillemer, Silverstein & Suitor, 2012) 결과와 일치하여, 한국의 현재 중년기 성인들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일보다 자녀 양육에 더욱 삶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성인들이 노부모를 부양할 때 좋은 점으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한다는 사실(박영신 등, 2017)은 한국인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망만이 아니라, 부모 공경보다 자식 사랑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서양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성인자녀들이 노부모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녀에 집중했고(Fingerman 등, 2012), 노부모보다 자녀에 대해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빈번히 지원하며, 노부모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지만 자녀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인 정서와 연결되었다(Fingerman, Kim, Tennant, Birditt, & Zarit, 2016; Igarashi, Hooker, Coehlo & Manoogian, 2013)는 결과들과 관련된다.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 부모자녀관계의 토착심리와 관련된 역동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를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희생과 부모에 대한 존경에 의한 설명변량이 높았다(그림 2, 그림 3 참고). 성인의 자기효능감과 행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 중에서도, 부모의 희생에 대한 지각과 부모에 대한 존경이 중요한 구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에서 부모의 희생은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설명하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부각되어 왔다. 한국 성인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행복할 때는 가정이 화목할 때이며(박영신, 김의철, 2014), 이러한 가정 화목을 위해 본인이 해야 가장 대표적인 일은 가족을 위한 희생(박영신, 김의철, 2013) 이었다. 이러한 한국인

의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를 통해 밝혀졌던 부모의 희생과 행복에 대한 질적인 분석 결과들은, 이 연구에서 경로분석을 통해서도 그 연결고리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원가족에서 부모의 희생에 대한 인식과 부모에 대한 존경이, 성인의 현재 행복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가족 경험의 여러 하위요인 중에서 특히 공동체의식과 가족화목이 현재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박형원, 2015)된 결과를 통해서도, 가족공동체의식과 가정화목이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한 원가족에 대한 지각 또는 아동기의 긍정적인 양육경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를, 한국 문화의 시각에서 신중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원가족의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자기효능감, 자녀양육에 의미 있는 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선행연구들(김철근, 이완정, 2012)에서도 원가족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의 긍정적인 양육경험이 성인기의 자녀양육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결과 해석을 보면 일치하는 것 같지만, 이 연구에서 원가족의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부모의 기대에 대한 일치만이 아니라 부모의 희생에 대한 지각과 부모에 대한 죄송함의 마음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하위변인의 구성은 그동안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4; 박영신 등, 2004)에 토대했다.

선행연구들(김철근, 이완정, 2012)에서 원가족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의 긍정적인 양육경험은 서양의 측정도구(Epstein, 1983; Mother Father Peer Scale)를 번역한 것으로, 부모가 독립성을 강조하고 수용적인 방식으로

훈육한 정도를 긍정적인 양육으로 정의했다. 한국인의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는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기보다 희생을 통해 관계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부모의 희생에 대한 죄송함을 지각하며, 존경하는 부모의 기대에 일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강화된 유대관계는 대리적 성취의 피드백과 혼연일치된 행복의 나눔을 경험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건강성이나 긍정적인 아동기 양육경험을 서양 문화에 토대한 도구로 측정하기보다, 한국 문화에 토대하여 토착적인 부모자녀관계가 갖는 속성과 역동을 지속적으로 규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한국인의 원가족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희생, 존경, 죄송함, 기대일치의 변인들을 포함하였다. 죄송함이나 기대일치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이나에 대해 질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한국인의 토착적 부모자녀관계를 규명해 온 선행연구 결과들(박영신, 김의철, 2004; 박영신 등, 2004; 박영신, 박영균, 김의철, 한기혜, 2011;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에 기초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정교한 연구설계를 통해, 한국인의 토착적 부모자녀관계가 갖는 영향들을 계속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성인의 전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의 어려움극복효능감만이 아니라, 성인에게 중요한 인간관계의 측면을 고려하여 부부관계효능감과 노부모부양효능감을 포함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박영신 등, 2016)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이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타당한 하위요인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후속연구에서는 각 척도의 구성타당도 문제에 더욱 세심한 고

려를 해 볼 여지가 있다.

원가족이 성인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누적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맥락에 따라 원가족 영향의 세대 간 전이가 다르게 나타남을 밝히 연구(Yoshida & Busby, 2012)가 있다. 예컨대 원가족에 대한 지각이 성인의 가까운 이성관계에서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 간에 비교하였을 때, 아시아에서 태어난 아시아인이 북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아시아인이나 백인보다 원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궁극적으로 성인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 성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자녀의 행복만이 아니라 성취에도 어떠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인간 발달의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시도하려고 한다.

또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족관계 중에서도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는 부부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모형에서는 인간관계 중에 가족의 수직적 관계에 해당되는 현재 가정에서의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에 주목하였다. 후속연구에서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의 현재 가정의 부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부부의 만족한 관계나 갈등이 성인의 생활만족이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추가함으로써, 원가족 부모자녀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의 영향과 관련된 분석에서 성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추후에는 원가족 아버지의 영향과 원가족 어머니의 영향을 세분하여 다루어볼 필요도 있다. 원가족 부와 모의 관계를 구분하여 현재 가족에서 자녀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최미경 등, 2014)했을 때, 원가족 부관계와 모관계 모두 현재 자녀와 긍정적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 영향이 있었으나, 현재 자녀와 부정적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선행연구(한운정, 정혜정, 2014)에서는 원가족 부와의 애착관계가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의미 있는 영향이 있었으나 원가족 모와의 애착관계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양의 연구(Brown, Larson, Harper & Holman, 2016)에서는 원가족에서 어머니와 자녀관계는 성인 여자의 관계적 자기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자녀관계는 성인 남녀 모두의 관계적 자기조절에 영향이 없었다. 성인자녀가 되었을 때 원가족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받는 영향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는 자녀의 성별과 상호작용하는지 등, 성차 변인을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노부모부양이라고 했을 때 노부모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노부모부양을 노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과 실제적인 부양행동을 측정함으로써, 자신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을 모두 포괄적으로 망라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양인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인지에 따라 다른 심리가 유발될 수 있다. 그리

고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일 경우도, 여자의 시부모에 대한 부양인지, 남자의 장인장모에 대한 부양인지에 따라 다른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 노부모부양을 다루는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토대하여 다양한 대안모형들을 제안하고, 대안모형과 연구모형간의 비교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형이 만들어졌으나, 성인의 행복이 자녀양육에 영향을 주는 대안모형의 구성도 가능할 수 있다.

맺음말

이 연구의 결과는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족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주된 가족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외견상으로는 바뀌었어도, 핵가족을 구성하는 개인의 심리특성만이 아니라 가족 내 인간관계도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의 영향이 세대간에 전수된다(하성희, 정혜정, 2008)는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변화하는 시대에 한국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어떻게 유지 계승되며 변화하고 있는지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설계를 통해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어린 시절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경험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새롭게 이룬 현재 가족에서의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고, 또 성인의 자기효능감과 나아가서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생의 초기에 경험하는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가 얼

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아동 청소년기에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많은 연구의 누적을 통해 널리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부모의 영향이 아동 청소년기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지속적이고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밝힌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원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심리특성과 확장된 가족관계에까지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부모의 영향은 아동 청소년기의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생애 걸쳐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심리 행동 발달과 삶을 이해하는 변인으로서 부모 변인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음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대가족이나 핵가족이냐는 가족의 구조보다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 경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핵가족으로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 해도,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양육에까지 영향력이 있다면, 같이 동거하느냐 동거하지 않느냐는 외연적인 사실보다 실제적으로 더 중요하다.

자녀의 생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의 영향력을 확인한 이 연구의 결과는, 부모 됨의 책임과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의 중요함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 또한 행복한 시민들로 구성되는 사회가 건강한 가정이라는 단위에서부터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가족문화의 맥락 속에서 원가족 부모-자녀관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 연구에서 다룬 변인들 외에도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된 연구설계를 통해 앞으로 한국인 토착심리(Kim & Park, 2004)를 경

험과학적으로 규명해 나가는 일련의 작업 중 하나로 계속 심도 있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경선, 성승연 (2012). 독서치료를 경험한 중년 여성의 삶의 인식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75-516.
- 김병영, 정소희, 김영호 (2011). 남아선호 가정에서 성장한 기혼여성의 가족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대상관계이론적 관점.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5(2), 95-126.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영희, 신희정, 채영문 (2007). 원가족의 정서 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진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김정민, 최연실 (2014). 50대 만학도 여성의 생애사 연구: 삶의 영역, 전환점과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1), 1-29.
- 김정희 (2002). 가족 재구성 모델을 통한 자기성장 집단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4(3), 599-619.
- 김지영, 최상진 (2004). 아내폭행 원인에 대한 통합적 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성격*, 18(3), 77-95.
- 김철근, 이완정 (2012). 아동기의 경험과 부모로서의 양육효능감이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70, 107-126.
- 남순현, 한성열 (2002).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33-49.
- 남순현, 한성열 (2003). 신혼기 부부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05-523.
- 문정희, 안정신 (2014).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양가감정 탐색. *한국노년학*, 34(2), 409-429.
- 박경환 (2011). 직장인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243-264.
- 박소영, 조성희 (2010). 시부모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패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5(3), 5-26.
-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10).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 간 심리특성 차이 분석: 생활 목표, 가족관련 가치, 학업기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4), 79-113.
- 박영신 (1997). 청소년 자기효능감과 통제부위 신념의 형성요인.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 박영신. *한국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41-17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탐구. 과주: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85-127.
- 박영신, 김의철 (2008).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 박영신, 김의철 (2009).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95-132.
- 박영신, 김의철 (2011).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 전업주부, 취업주부와 그들의 남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1), 65-108.
- 박영신, 김의철 (2013). 한국인의 성취의식: 토착심리 탐구. 파주: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1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토착심리 탐구. 파주: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박선영 (2013). 성인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가정,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0(2), 153-184.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2009). 고등학생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효도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간발달연구, 16(2), 109-141.
- 박영신, 김의철, 신영이, 이임순 (2014). 청소년의 효도에 대한 지각과 학업성취: 부모 정서적 지원과 부모관계효능감의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1(10), 415-443.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 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정희, 전성숙 (2016). 가족형태별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인식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2(3), 455-485.
- 박영신, 박영균, 김의철, 한기혜 (2011).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 지역, 부모의 기대, 부모와 갈등,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2(3), 5-41.
- 박영신, 박영자, 남인순 (2017).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노부모 부양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3(3), 409-449.
- 박영신, 이경란 (2014). 직장인의 직무만족도 형성에 대한 연구: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스트레스 및 직무성취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0(4), 469-491.
- 박영신, 이경란, 안자영, 이상희 (2015). 직장인의 스트레스 증상과 대처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직무성취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1(3), 317-338.
- 박영신, 이임순, 이상희, 김태우 (2015).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9(3), 505-542.
- 박형원 (2015). 기혼 성인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영향 요인: 원가족 경험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184-194.
- 송기춘, 정혜정 (2010). 기혼 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적응이 노부모와의 결속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2), 49-69.
- 연은경, 김영희 (2014). 아버지의 원가족 부모관계와 부부관계가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 는 영향.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9(3), 509-257.
- 오종현 (2016). 원가족경험과 결혼만족 관계에 미치는 자기분화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7(2), 509-532.
-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3). 가부장적 원가족 분위기가 신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16.
- 유연지, 조현주, 권정혜 (2008). 부부의 원가족 특성과 고부 응서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433-451.
- 이성희, 김현수, 조성경 (2012). 결혼이주여성의 개인배경특성,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이 결혼만족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167-189.
- 이숙희, 고인숙, 심정선 (2009). 부모가 지각한 원가족과 부모의 양육스타일 및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111-134.
- 이신숙, 차용은 (2000). 성인자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원가족에 대한 가족건강도 지각이 노모와의 유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4), 21-32.
- 이원준, 신성자 (2015). 노부모 수발에 대한 정서적 규범적 헌신과 부모자녀 친밀성의 세대 간 전승효과: 부자, 모녀관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8(1), 125-154.
- 이재림, 김영희 (2011).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불안과 행복감을 매개로. *대한가정학회지*, 49(7), 13-24.
- 이주연, 장선웅 (2011).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과 부부친밀감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93-111.
- 이준선 (2014). 기혼 기독교인의 원가족 경험이 가족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영적 성숙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1), 157-195.
- 장성숙 (2007). 가족주의와 현실역동상담의 일체적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9(3), 523-537.
- 전주혜, 박정윤, 김양희, 장영은, 어성연 (2010).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15.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미경, 김영희, 정혜숙 (2014). 어머니의 원가족 부모관계와 부부관계가 유아기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3), 221-237.
- 최연우, 백용매 (2010).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친밀감 및 고부갈등이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17(2), 145-164.
- 하성희, 정혜정 (2008).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 *상담학연구*, 9(2), 789-806.
- 한윤정, 정혜정 (2014).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결혼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9(4), 855-881.
-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rown, M., Larson, J., Harper, J., & Holman, T. (2016). Family-of-origin experience and emotional health as predictors of relationship self-regulation in marriage. *Journal of Family Therapy*, 38(3), 319-339.
- Costa-Ramalho, S., Marques-Pinto, A., & Ribeiro, M. T. (2017). The retrospective experience of climate in the family-of-origin and dyadic coping in couple relationships: pathways to dyadic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Studies*, 23(3), 371-388.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Epstein, S. (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 Fingerman, K. L., Pillemer, K. A., Silverstein, M., & Sutor, J. J. (2012). The baby boomer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Gerontologist*, 52(2), 199-209.
- Fingerman, K. L., Kim, K., Tennant, P. S., Birditt, K. S., & Zarit, S. H. (2016). Intergenerational support in a daily context. *Gerontologist*, 56(5), 896-908.
- Hardy, N. R., Soloski, K. L., Ratcliffe, G. C., Anderson, J. R., & Willoughby, B. J. (2015). Associations between family of origin climate, relationship self-regulation, and marital outcom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41(4), 508-521.
- Igarashi, H., Hooker, K., Coehlo, D. P., & Manoogian, M. M. (2013). "My nest is full:"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t mid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27(2), 102-112.
- Kim, U.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psychological, cultural and ecological analysis. NIAS Reports, No. 21. p.40.
- Kim, U., & Park, Y. S. (2004). Indigenous psychologies. In C. Spielberger (Ed.), *Encyclopedia of applied psychology*, vol 2. 263-269. Oxford: Elsevier Academic Press.
- Kiviniemi, A. A. I., Wasz-Hockert, O., Seitamo, L. K., Juskitt, L. O., Heikkinen, H. P., Moilanen, I. K., & Ebeling, H. E. (2011).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images and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in a Northern Finland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Circumpolar Health*, 70(2), 215-227.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artinson, V. K., Holman, T. B., Larson, J. H., & Jackson, J. B.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coming to terms with family-of-origin difficulties and adult relationship satisfac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8(3), 207-217.
- Prioste, A., Narciso, I., Goncalves, M., & Pereira, C. R. (2016). Adolescent parents' values: The role played by retrospective perceptions of the family-of-origi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1), 224-231.
- Sadeghi, M. S., Mazaheri, M. A., Motabi, D. F., & Zahedi, K. (2012). Marital interaction in Iranian couples: Examining the role of culture.

-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3(2), 281-300.
- Silverstein, M., Parrott, T., & Bengtson, V. (1995). Factors that predispose middle-aged sons and daughters to provide social support to olde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2), 465-475.
- Trieu, M. M. (2016). Family obligation fulfillment among southeast Asian American young adults. *Journal of Family Issues*, 37(10), 1355-1383.
- Yoshida, K., & Busby, D. M. (201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effects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33(2), 202-222.

논문 투고일 : 2018. 02. 01
1 차 심사일 : 2018. 02. 05
게재 확정일 : 2018. 04. 04

The Effect of Korean Adults' Perception of Parent-Child Relation on Self-Efficacy, Child Rearing Practices, Elderly Parent Care Practices, and Happiness

Young-Shin Park Ja-Young Ahn In-Soon Nam
Hyo-Sook Yu Yeoung-Nam Lee Yeon-Sil Cha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Korean adults' perception of parent-child relation on their self-efficacy, child rearing practices, elderly parent care practices, and happiness. In this study the parent-child relation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adults' parents and the adults.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adults (2,632; male=1,275, female=1,357) with children in primary, secondary, and/or university, with an average age of 45.44-years-old (male=46.96-years-old, female=44.10-years-old). The results showed a direct influence of the adults' perception of parent-child relation on their self-efficacy and their child rearing practices, and an indirect influence on their happiness. This indicates that a more positive adult's perception of parent-child relation leads to higher self-efficacy and greater devotion to their child rearing practices. And furthermore, an elevated self-efficacy enhanced their happiness.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for the influence of adults' perception of parent-child relation on elderly parent care practices. For Korean male adults, a more positive perception of parent-child relation lead to a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elderly parent care practices. However, for Korean female adults no direct influence was found. Based on these results, a discussion of the influence of adults' perception of parent-child relation on the adul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amily-members relationships is provided.

Key words : Parent-child relation, self-efficacy, child rearing practices, elderly care practices, happiness, Korean adults with children